

# 전남 상위권 탈환 '시동'

## K-리그 후반기 레이스 돌입

### 광주, 내일 울산과 일전



프로축구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가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광주-울산, 전남-대구, 전북-포항, 제주-경남, 성남-대전, 인천-부산, 서울-수원전이 23일 밤 전국 7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개막돼 그라운드에서의 열기를 달군다. 광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전기리그를 7위로 마감한 전남드래곤즈도 같은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후반기 첫 경기를 펼친다. 전기리그는 성남 일화의 독주로 다소 심겁게 막을 내렸지만 후반기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우승 후보들의 대반격

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성남을 비롯해 수원 삼성, FC 서울, 울산 현대, 전남 드래곤즈 등은 정상을 노릴만한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후반기에는 2007 아시아컵 예선으로 인한 대표팀 차출과 울산 및 전북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참가, 포항 스틸러스 등 우승 후보에게는 늘 걸려온 상대들의 활약 여부 등 변수들이 많아 어느팀도 우승을 장담하기 힘들다. 대대적인 전력 보강으로 명가 재건에 나선 수원을 비롯해 삼성 하우젠컵 우승의 상승세를 몰아가려는 서울, A3챔피언스컵 2006 우승으로 자신감이라는 보약을 챙긴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과 상위권 탈환을 노리는 전남 등이 성남이 한 장을 가져가고 남은 3장의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따내기 위해 숨막히는 혈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연맹 무능 행정이 K-리그 위기 불러”

### 축구연맹, 지도자 등 600명 설문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안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문제는 현 집행부의 부실 운영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축구연구소(이사장 허승표)가 각급 축구연맹 관계자와 프로구단, 축구담당기자, 일선 지도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로축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응답자 361명 가

운데 ‘출범 24년이 된 국내 프로축구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98.9%(357명)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K-리그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프로축구연맹의 무능한 행정 탓이라는 답변이 48.2%(17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단의 소극적 운영(31.0%), 낮은 경기 수준(10.1%), 뜻은 대표선수 차출(7.6%) 순의 답변이 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베어벡 축구 감독 출국 유럽과 밀착관리 나섰다

“단순히 경기만 지켜보는 게 아니다. 소속 팀 감독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펠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럽과 태극전사들에 대한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베어벡 감독은 21일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이번 출장 기간 현지시간으로 22일 밤 이영표가 나올 토트넘-세필드전, 그 다음날 박지성이 뛰게 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윔블튼전을 보고 27일에는 차두리(마인츠)의 플레이를 보러 독일로 넘어간다. 베어벡 감독은 지난 주말 해외와 태극전사들의 경기를 보려고 했지만 숙소의 케이블 TV 접속 상태가 나빠 보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대한축구협회에 앞으로는 해외와 경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녹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베어벡이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현지에서 태극전사들의 소속 팀 코칭스태프를 직접 만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는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전에 이미 설기현의 소속 팀인 레딩 FC의 스티브 코펠 감독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토트넘의 마틴 울 감독,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 등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다. 플레이를 보는 것 못지않게 소속 팀 감독과 코치진의 의견을 전해들어 선수의 활용도를 높여보겠다는 복안이다.



“조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포드 구장에서 열린 풀햄과의 경기 도중 풀햄의 하이디르 헬게슨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후반 교체 출전

## 30분간 활발한 움직임... 맨유, 풀햄에 5-1 대승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후반 교체 투입됐지만 공격포인트 없이 물러났다. 박지성은 20일 밤(이하 한국시간) 홈 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풀햄과 2006~2007 시즌 프리미어리그 1차전에서 팀이 4-1로 크게 앞선 후반 16분 라인 리스 대신 교체 출전, 왼쪽 미드필더로 30여 분을 뛰었다. 박지성은 후반 22분 페널티지역 내 왼쪽에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등 공수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34분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가 먼저 걸어냈다. 맨유는 전반 8분 루이 샤아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상대 자책골과 웨인 루니(2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속골을 묶어 5-1 대승을 거두며 산뜻하게 새 시즌을 시작했다. 한편 잉글랜드 축구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후반 16분 라인 리스 대신 교체 출전한 박지성에 대해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typically busy)’라는 평가와 함께 평범한 평점인 6점을 줬다. 두 골을 넣은 웨인 루니는 평점 9점을 받았다.

## 프리미어리그 개막...4강 팀 성적 '희비'

‘꿈의 축구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6~2007 시즌 개막전이 지난 주말(19~20일·한국시간) 일제히 펼쳐진 가운데 2005~2006 시즌 1~4위를 기록한 4강 팀의 성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웃은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 첼시와 2위를 차지한 박지성(25)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는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에서 존 테리(전반 11분)와 프랭크 램퍼드(전반 26분), 디디에 드로그바(후반 33분)가 릴레이 골을 터트리며 3-0, 완승을 거뒀다. 맨유도 홈 개막전에서 웨인 루니의 2골에 루이 샤아, 이안 퍼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골씩을 터트리 풀햄에 5-1로 크게 이기며 새 시즌 전망을 밝혔다. 반면 3위 리버풀과 4위 아스날은 비교적 약체로 평가되는 팀을 만났는데도 시즌 끌려가는 경기 끝에 힘겹게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진땀을 흘렸다.

## 동성고 봉황대기 준결승 진출

### 임창윤 연타석 홈런...부산고 2-0 꺾어

‘호남야구 명문’ 광주 동성고가 제3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동성고는 21일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부산고와의 8강전에서 임창윤의 연타석 솔로포를 앞세워 2-0으로 승리, 대회 4강에 올랐다. 동성고는 2007년 KIA 신인 2차 1지명 선수인 ‘특급 좌완’ 양현종의 9이닝 4피안타, 탈삼진 9개,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동성고는 22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경북고-선린인터넷고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녹동초등학교 배구팀

### 전국대회 3관왕 위업

고흥 녹동초등학교(교장 송재평) 남자배구팀이 창단 3년 만에 올 전국대회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사진> 녹동초 배구팀은 지난 18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KBS, SKY배 제8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서울 신강초등학교를 2대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녹동초 배구팀은 지난4월 경남통영에서 개최된 제2회 한산대첩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와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39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 전국 초등학교 남자배구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창단 3년에 불과한 녹동초 배구팀이 이처럼 탁월한 성적을 거둔데는 고흥군과 고흥군배구협회를 비롯한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용우 감독 및 남광구 코치의 훌륭한 지도력이 뒷받침 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김용우 감독이 지도자 상을 받았고, 최우수선수상에 신종호(6년·센터)선수, 장진호(6년·세터)선수가 세터상을 각각 수상했다. /녹동=주각종기자 gju@



- 22일(화)
  - ▲메이저리그 <LA다저스 : 샌디에이고>(10 : 55·Xsports)
  - ▲봉황대기고교야구대회 준결승(15 : 30·KBSSKY)
  -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 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 ▲프로야구 <LG : 기아>(18 : 00·MBCESPN)
- 23일(수)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 세필드>(04 : 00·MBCESPN)

##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사건 발생 후...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060-700-3658

##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덕여 본 사립촌 만드사 또 갖는다는 그 맛!

40만세프 판매기념, 최초구성에 7마리 추가

080-440-8080